

신당·민주 '통합 협상' 진통... 난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간 당 대 통합 및 후보단일화 협상이 양측의 입장 차이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대선 막판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양 당은 대선 승리를 위한 과감한 기득권 포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위기 국면에서의 결집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지겹게 보여왔던 분열과 오기의 정치를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합당과 단일화에 대한 합의한 양당은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협상에 착수했으나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4인 회동의 합의 사항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중앙위원회의 등의 구성을 5대5 동수로 하고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기로 한 부분으로, 신당은

최고위 등 5대5 구성·전당대회 시기 견해차 못 좁혀
대선 보단 총선 치중 줄다리기...막판 타결 가능성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일 점도 고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 협상 대표인 대통합신당 문희상,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주말 동안 연쇄접촉에 나섰지만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신당 문희상 대표는 "아무리 4자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이를 존중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일시 조정 및 지분 문제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당의 대표와 후보가 합의한 사항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민주

신당 측이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당 대 통합을 무산시킨 후 후보 단일화만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정동영 후보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신당 측이 경우에 따라 후보단일화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실력 행사를 내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 신당 측에 '4자 회동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통합과 후보단일화가 무산될 경우의 대비책을 강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합신당과 민주

당 협상단은 이날 밤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양당의 원상 통합 협상은 사실상 데드라인인 19일 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통합 협상이 무산된다면 양 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19일께 막판 수정안을 제시하고 대통합신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통합 협상이 무산된다면 양당이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늦어도 19일까지는 양당이 통합에 대한 타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사망자 2천명 넘어서

'시속 250km' 16년만에 최대 피해
이재민 1백만명...피해 계속 늘 듯

최대 시속 250km의 강풍과 폭우로 지난 15일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초강력 사이클론 '시드르(Sidr)'에 의한 사망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정부 재난관리국의 마수드 시르크 사무총장은 AFP통신에 "현재까지 2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두절 등으로 집계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와 실종 상태인 수백 척에 타고 있던 어부 1천여명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방글라데시 식량재난부 관리인 아우브 미아는 로이터통신에 "고립된 지역 주민들을 찾고 정확한 사망자와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클론 시드르를 피해 대피한 인원은 줄잡아 150만명에 달했고 이재민 수도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시드르에 의한 참사가 14만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지난 199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군(軍) 당국, 국제 인권구호단체들은 이날도 헬기 등을 동원해 고립 주민 수색과 함께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타폴 마을 주택가. 지난 15일 밤 남서부 해안지역에 상륙한 사이클론 시드르(Sidr)는 시속 250km의 강한 비바람을 뿌리며 인근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AFP-연합뉴스

비상 식량, 약품을 공수하고 있다. 그러나 폭우로 대부분의 도로가 유실된데다 강물에 휩쓸린 나무와 무너진

주택 잔해 등이 구조대원들의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복구는 업무도 못하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4년 중임제 개헌·정당명부제 추진 가능"

鄭, 문국현에 후보단일화 공식 제안

文측 "기존 입장 변함 없으나 압박 느낀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8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논의를 공식 제안, 문 후보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 후보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국민비전 선포식'을 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반부패, 좋은 성장, 가족행복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후보"라며 "문 후보와의 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문 후보가 제안해온 '가치·정책' 중심의 연대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문 후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특히 "문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과 정당명부제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개헌논의를 고려한 단일화 또는 정책연합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은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날 오후에 내놓기로 했던 공식 입장 발표를 늦추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열린 인터넷 토론회에서 "지금(은 단일화 제안을) 받을 수 없다. 정동영 후보가 백의중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문 후보측 장유식 대변인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압박을 느끼는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해남군수 후보 김충식씨

장성군수 후보 김한중씨

신당 12·19 재보선 후보 확정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2·19 해남군수 보궐선거 후보에 김충식 전 해남군 기획예산실장, 장성군수 재선거 후보에는 김한중 전 전남도의원을 확정했다.

광역의원 광주 동구 제1 선거구에는 양혜령 치과원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기초의원인 경우 나주 선거구에 최영주 전남도당 농업발전특별위원장, 영암 리에는 김영환 미암한우법인 대표를 각각 공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구 온난화로 2100년 해수면 최대 59cm 상승"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17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27차 총회에서 지난 5~6년간의 연구결과를 모은 '종합보고서'와 20작

분량의 '최종요약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현재의 발전 시나리오(A1F1)를 유지할 경우 2100년이 되면

20세기 말에 비해 기온은 최고 6.4도, 해수면은 최고 59cm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농도가 안정화되더라도 기후변화의 관성과 피드백 때문에 수 백년간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현제 접수중

광주고시학원

062-434-4003

062-434-40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시무실 062-434-4011

47동 062-434-4011

교육원 전일 서울에서 승강/저차학관/대형관공·연국경·부동산TV출연·강사진!

개강 12월 3일

국비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은 문화의 꽃이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예술이다. 신비로운 마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친구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술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은 마술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술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분은 마술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료/입/대/합수

마술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분은 마술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

저렴한 유가 현금 폭탄 발송

저음 냉방 고민 끝

초절전형 냉방기

무엇보다도 무조건 신뢰

무이자 12개월 분할

062-372-2900